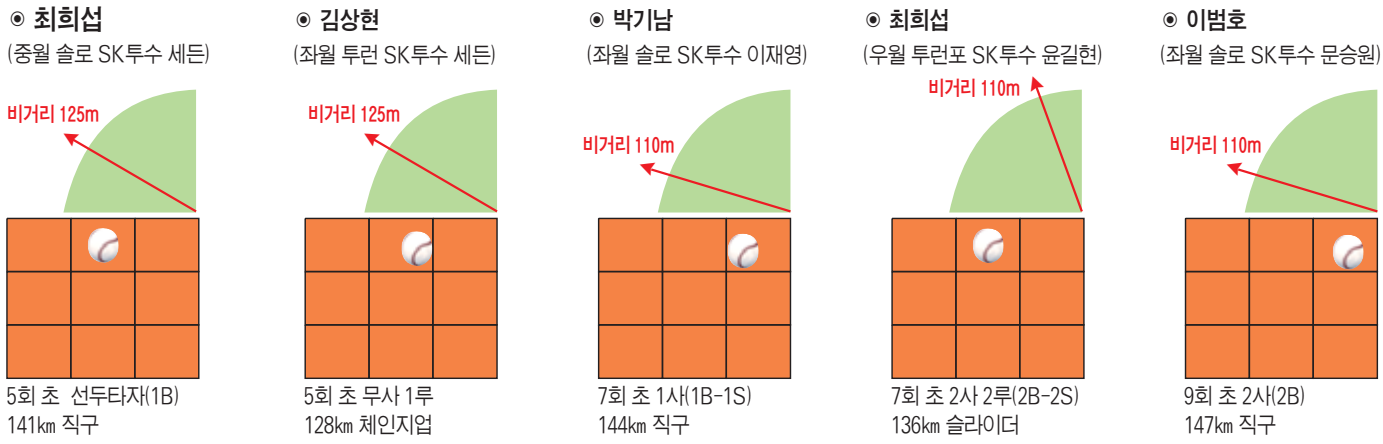


‘LCK포’ 드디어 터졌다



이범호·최희섭·김상현 첫 동반홈런 ... 최희섭 4경기 5홈런

KIA, 9-0 SK 꺾고 선두 질주 ... 양현종 3승, 이승·방어율 1위

박기남도 마수걸이 홈런



‘LCK’포가 2년의 침묵을 깼다. KIA 타이거즈가 21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2차전에서 5개의 홈런포를 몰아치며 9-0의 완승을 거뒀다. ‘빅쇼이’ 최희섭이 연타석 홈런을 비롯한 4경기 연속 홈런포를 날렸고, 김상현과 이범호도 마수걸이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LCK’포의 위력을 과시했다. 2009년 홈런왕 싸움을 벌이며 팀 우승을 이끌었던 최희섭과 김상현의 동반 홈런은 2010년 8월3일 이후 처음이다. 타자들의 화끈한 타선지원을 받은 선발 양현종은 7이닝 무실점의 완벽투로 시즌 3승을 올렸다. 다승 부문 공동 1위다. 방어율은 1.65에서 1.16까지 낮추며 1위 자리를 지켰다. KIA 양현종과 SK의 투구 용병 세튼의 좌완 맞대결의 팽팽한 흐름을 깬 것은 최희섭이었다. 5회초 선두타자로 나온 5번 최희섭이 세튼의 직구를 받아 중앙 담장을 넘기며 공격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7일 LG와의 경기

를 시작으로 4경기 연속 홈런이다. 신중걸의 우전안타가 이어지면서 무사 1루, 이번에는 김상현의 한방이 터졌다. 김상현은 세튼의 조구를 공략해 좌월 투런포를 기록했다. 세 번째 홈런은 박기남이 장식했다. 7회 1사에서 9번 박기남은 이재영을 상대로 좌월 솔로포를 날리며 4-0을 만들었다. 이용규의 2루타와 김선빈의 볼넷이 더해진 2사 2·3루에서는 이범호가 좌측 펜스를 때리는 커다란 2루타로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볼빨은 공격은 계속됐다. 공격의 물꼬를 텄던 최희섭이 이번에는 윤길현을 상대로 우측 담장 넘기는 투런포를 장식하며 승부에 쐬기를 밝혔다. 9회 2사에서 이범호까지 손맛을 보는 등 KIA는 5개의 홈런으로 7점을 만드는 괴력을 발휘했다. 최희섭은 4타수 3안타 2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공격의 중심에 섰다. LCK포의 부활 속에 양현종까지 호투 릴레이를 이어가면서 KIA는 공·수에서 날개를 달게됐다. 89개의 공을 던진 양현종의 이날 기록은 7이닝 3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 양현종은 7회까지 단 하나의 볼넷을 내주는 깔끔한 피칭으로 3차례의 선발 등판에서 모두 승리투수

◇ 21일 문학구장

KIA	0	0	0	0	3	0	5	0	1	-	9
SK	0	0	0	0	0	0	0	0	0	-	0

• 투수=양현종(승 3승)
 • 홈런=최희섭 4, 5호(KIA 5회1점, 7회 2점)
 김상현 1호(5회 2점), 박기남 1호(7회 1점)
 이범호 1호(9회 1점)

■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21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15	11	4	0	0.733	2승
2 넥센	18	12	6	0	0.667	5승
3 두산	15	9	5	1	0.643	1패
4 LG	16	10	6	0	0.625	1승
5 삼성	15	9	6	0	0.600	1승
6 SK	16	7	9	0	0.438	2패
7 롯데	15	6	8	1	0.429	1패
8 한화	18	4	14	0	0.222	1승
9 NC	16	3	13	0	0.188	5패

가 됐다. SK를 압도한 KIA는 적지에서 2승을 쓸어담으며 11승4패 0.733의 승률로 1위 독주를 이어갔다. 잠잠하던 이범호와 김상현이 살아난 KIA는 김주찬까지 본격적인 재활에 들어가면서 전반기 레이스에 힘이 실리게 됐다. 지난 19일 반깡스를 쓴 김주찬은 21일 재활에 집중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5월 말 복귀를 목표로 한 김주찬은 5월 3일까지 요코하마 이치미 병원에서 특별 재활 치료를 받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볼빨은 방망이 KIA 최희섭이 21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원정경기에서 5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선제 솔로홈런을 때리고 있다. 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최희섭(위)을 필두로 김상현·박기남·이범호(아래 외쪽부터)가 5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9-0 승리를 이끌었다. <KIA 타이거즈 제공>

1만6000타점
 3200홈런
 3800도루
 정규 이닝 최장 시간

KIA 타이거즈 진기록·명기록 행진

18일 경기에서는 두 개의 기록이 작성됐다. 4회 김원섭의 시즌 마수걸이 홈런이 나온 뒤 6회 최희섭이 3점포를 날리며 역대 두 번째 팀 3200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기분 좋은 홈런에도 불구하고 이날 KIA는 씁쓸한 역전패와 함께 LG와 최장시간 기록을 합작하기도 했다. 이날 마운드의 난조 속에 양팀은 앞치락 뒤치락 하는 ‘진흙탕 승부’를 벌이며 무려 5시간 동안 힘겨루기를 했다. 밤 11시30분에 끝난 이날 경기는 정규이닝 최장시간 타이 기록, KIA와 LG는 지난 2008년 5월 24일에 9회까지의 승부에서 5시간의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타이거즈 대도 계보를 잇는 이용규의 빠른 발도 기록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진기록 명기록 행진이 계속된다. KIA는 지난 주 LG와의 홈경기에 이어 문학으로 가 SK와 원정 경기를 가졌다. 4승1패의 신바람 행진을 하는 동안 팀기록 행진도 이어졌다. 17일 LG와의 경기에서는 역대 두 번째 팀 1만6000타점이 작성됐다. 1-2로 뒤진 3회말 무사 2·3루에서 이범호는 승부를 뒤집는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KIA의 1만6000타점을 채웠다.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웨딩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십 카드인 신양 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객실이용시 40% DC (금토공휴일 전일 30% DC)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가족모임(등잔차, 교회면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헌수막, 케이크 서비스)
작게 가족 웨딩 시 10% DC 휘트니스 시우나 이용 시 40% DC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 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 시 50% DC (단, 본인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제과 전품목 20% DC

봄향연 특선메뉴!

양식당 Rosemary
 소고기 안심과 등심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부엌 스테이크 16금 휘우와임 스테이크

중식당 ~ 豫園
 중국 명요리 x o 스스의 새우요리와 17가지 엄선된 재료로 요리한 황자매정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